

소견서

2000년을 전후로 질량분석학에 대한 관심과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선도 연구자분들의 노력과 희생을 기반으로, 2004년 소헌영 박사님을 초대 회장으로 한국질량분석학회(KSMS)가 창립되어, 현재 10대 회장인신 김병주 박사님까지 지난 19년동안 KSMS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학술단체로서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학회 운영의 틀을 끊임없이 다듬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며, 한 명의 회원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이제 창립 2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국내 질량분석학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의 업적과 헌신을 기억함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나쳤던 아쉬움들이 있었다면 정성을 다해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문/응용 분야 별로 조직을 구성하여 회원분들의 중개연구 및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KSMS 회원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관련 연구자들에게 질량분석법에 관한 쉽고 올바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질량분석학을 필요로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학회로부터 정보를 얻고, 회원분들이 학회를 통해서 연구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KSMS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저는 이번 수석부회장 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1일

후보자 최만호

